

6. 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통일을 앞당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동렬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동렬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난해 8월 전동렬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이 깃들어있는 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며 여러가지 최첨단 기계제품을 개발하는것과 함께 경비행기들을 만들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지말씀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공장의 로동계급은 1950년대 군자리로동계급이 발휘한 정신으로 투쟁함으로써 당에서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목표별, 단계별로 훌륭히 수행해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장을 돌아보시면서 새 제품개발 및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장에서 우리 나라 기계제작공업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최첨단설비들을 개발한데 이어 계열생산에 진입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에서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에 드리는 자랑찬 선물인 새로운 최첨단설비들을 개발함으로써 당의 결심은 곧 실천이라는것을 다시금 증명하였다고 하시였다.

공장로동계급이 최첨단설비들을 개발하는 과정에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수 있는 경이적인 과학기술적성과를 이룩했다고 하시면서 결과 우리의 기계제작공업을 도약시킬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마련되였다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장이 맡고있는 임무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는 나라의 기계제작



공업을 더 높은 곳으로 비약시키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공장에서 새 제품을 개발하면서 첨단기술을 습득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은 것만큼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해야 한다고, 기계제작공업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할뿐아니라 세계를 압도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모든 기계제품들을 설계상요구보다 더 훌륭하게 만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 맡겨진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며 제품의 질을 부단히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든 생산공정을 고도로 자동화, 흐름선화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기계제작공업의 본보기, 표준이 될수 있게 새로운 기술공정을 확립하는것과 함께 협동품을 생산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빈틈없이 세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기계설비들의 성능과 제품의 질을 담

보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시험설비들과 검측설비들을 그쯘히 갖추어놓으며 도장 및 인쇄공정도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이리시였다.

공장현대화사업에서 설비현대화보다 더 중요한것은 인재육성이라고 하시면서 설계력량은 물론 기술자, 기능공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과학자, 기술자들의 연구조건과 생활문제를 원만히 풀어주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장에서 새로 만든 경비행기들의 시험비행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 만든 경비행기들의 구조와 성능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시험비행을 진행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경비행기들이 조국의 대지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푸른

창공을 날으는 경비행기들을 바라보시며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이 공장에서 군용비행기뿐만아니라 여러 기종의 민간용경비행기들도 마음먹은대로 만들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로동계급이 만든 비행기인데 자신께서 타보아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이 좋아할것이며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라고 하시면서 몸소 경비행기에 오르시여 리찰륙시험비행을 진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의 로동계급이 만든 경비행기를 타보았는데 성능이 대단히 높다고, 조종하기 편리하고 발동기소리가 아주 좋다고, 잘 만들었다고 거듭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난해에 경비행기를 만들데 대한 지시를 주고 견본도 보내주었는데 해당 부문과 전동렬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 련관단위의 공장, 기업소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이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모든 장비, 장치들이 국산화된 경비행기들을 훌륭히 만들어냈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뜨겁게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동렬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키며 현대적인 기계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킴으로써 부강조국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얼마전 공화국과 린접한 이웃나라 국경지역에서 반공화국정탐모략책동을 벌이던 남조선간첩들이 체포되었다. 그들의 자백으로 드러난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정탐모략책동에서 가장 엄중시되는것으로 내외의 시선을 끌고있는것이 수뇌부에 대한 테로범죄기도이다.

2010년 공화국 최고수뇌부의 외국 방문과 관련한 자료, 2011년 민족의 대국상이 후 최고수뇌부의 건강과 현지지도 등의 자료들을 수집하며 최고수뇌부에 대한 테로 기회를 노렸다고 한다.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막후조종을 받으며 공화국의 최고수뇌부를 해치려고 벌이고있는 특대형 범죄행위는 이번에 처음 드러난것이 아니다. 미국과 해마다 벌리는 군사연습들에 공화국의 최고수뇌부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계획》들이 포함되어있으며 첨단 무기의 구매와 개발도 첫 목표가 최고수뇌부로 되고있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2012년 4월 남조선 국방부는 최신순항미사일

을 공개하며 《평양의 집 무실창문까지 정확히 타격할수 있다.》고 밝혔으며 2013년 2월에는 최신 함대지, 잠대지미사일을 공개하며 《지휘부창문을 플라 타격할수 있다.》, 《지휘세력중정》을 떠들었다. 몇해전에는 겨레의 뜨거운 마음들이 달려가 는 공화국 각지의 동상과 대기념비들을 파괴하려고

될지 모르고있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자기의 령도자를 운명의 태양으로 받들고 따르고있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훌륭한 군대이고 인민이다. 공화국에서 수령결사옹위는 단지 구호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신념이고 행동으로 되고있다. 하늘처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단호한 징벌을 안기라는 분노와 멸적의 함성들이 강산을 진감시켰었다. 공화국의 전사회에 깔찬 수령결사옹위정신, 평범한 날에도 발휘되는 그런 정신은 결전의 나날에는 최고도로 발휘되기 마련이다. 최고수뇌부에 대한 용서 받을수 없는 특대형테로 범죄지도 그 하나만으로도 화약더미에 불을 다는것처럼 공화국 군민의 쌓이고 쌓인 분노와 멸적의 의지를 활화산처럼 폭발시키기에 충분하다.

인류사에는 한방의 총성이 세계대전을 불러온 사실이 기록되어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의 치명리는 공화국 최고수뇌부에 대한 테로범죄기도는 그와는 대비도 될수 없는 위험천만한것이다. 자기의 최고존엄을 훼손하고 최고수뇌부의 안전을 노리는 적대세력은 그가 누구이든 그 어느곳에 박혀있든 상상도 못할 타격으로 끝까지 징벌하려는 공화국군대와 인민의 철의 의지를 남조선당국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자멸의 방아쇠를 당길 특대형테로범죄기도

《동까모》라는 테로단체까지 못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던 엄중한 범죄행위도 드러났다. 이번에 수뇌부에 대한 테로음모까지 드러남으로써 공화국의 심장부를 겨냥한 특대형테로범죄기도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단계에서 본격추진되고있는가 하는것이 남김없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러나 남조선의 음모자들은 공화국의 최고수뇌부를 겨냥한 테로범죄행위가 얼마나 용서받을수 없는 특대형반민족범죄이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어떤 파멸적후과를 들뜨우게

령도자를 위해 불붙는 집에 뛰어들어 초상화를 모셔내오고 적대세력과의 결사전에도 주저없이 나가 자폭의 위훈을 떨치며 영광사나운 날마다에서 배가 침몰하여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에조차 자신들의 운명이 아니라 령도자를 그리며 초상화를 물기 한점 못 들어가게 정히 싸서 품에 넣고 영웅적인 최후를 마치는 공화국의 군인들이고 인민들이다. 하기에 지난 시기 남조선에서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우롱하는 치명리는 행위들이 발생할 때마다 공화국전역은 대결세력에게

정권권력 - 모략과 범죄의 수뇌

최근년간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그 누구의 《제도붕괴》와 《급변사태》설을 요란스레 떠들어온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우리 겨레는 그때마다 격분을 터치면서 어떻게 되어 저런 가을 뻐꾸기같은 소리가 계속 나오는가 의아해했다.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정보원의 배후조종과 지령밑에 가장 비렬하고 음모적인 수법으로 반공화국정탐모략책동행위에 매달리다가 체포된 간첩들의 진술에 의해 그 《의혹》은 깨끗이 풀리게 되었다. 공화국의 수뇌부에 대한 테로와 모략적인 《인권》소동, 파괴압해책동으로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이루어보려고 한 것이다. 밝혀진 테로음모행위는 매우 위험천만하며 남조선당국이 추구하는것이 남북관계선이 아니라 갖은 불순한 방법으로 공

화국을 《붕괴》에로 몰아가기 위한것이라는것은 더 림증할 여지없는 사실로 되었다. 지금 그 범죄적기도를 앞장에서 실현해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는것이 남조선의 정보원이다. 남조선의 정보원이라는것은 동족대결을 생리로 하고 공화국을 반대하는 온갖 모략적인 적대행위들을 꾸며오고 집행해온 음모와 범죄의 소굴이다. 음지에 자라는 독버섯처럼 어두운 그늘속에서 공화국의 당, 국가, 군사비밀자료들을 수집하고 무엄하게도 감히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해치고 일심단결을 파괴하기 위한 온갖 모략과 음모를 고안해내는것도 부족해 외세와 야합하여 터무니없는 반공화국 《인권》 관련자료들을 날조하고 《비법무기판매》설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모략자료들을 조작하며 《테로지원국》의 모자를 씌워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해온것이 정보원의 범죄행적이다. 지어 남조선의 정보원은 《위조화폐제조국》이라는 딱지를 붙여 공화국의 영상을 호리케 하고 범죄적인 제재책동을 강화하기 위한 너절한 놀음도 앞장에서 벌리었다. 본사기자 서희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하는 미군과 남조선군

《독수리》의 발동은 완전히 드러났다. 기동훈련과 공화국의 지역과 류사한 포항에서 상륙훈련을 진행한것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상륙함, 이지스구축함, 초계함, 잠수함 등 30여

척의 함정과 수천명의 남조선미국의 해군과 해병대무력이 동원되어 실전의 분위기에 진행된 련합해상기동훈련과 80여대의 비행기와 40여대의 상륙돌격장갑차가 투입되어 전쟁광기를 부린 상륙작전훈련으로 남조선전역에는 짙은 전쟁화악내가 풍기였다. 한쪽에서는 전쟁모의관을 벌려놓고 다른쪽에서는 그것을 실행하는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더욱 광란적으로 벌려놓은것은 전쟁전야의 살벌한 움직임을 방불케 하고있다. 기습을 부리는 내외호전세력들의 무모한 전쟁광기는 내외호전세력들이 떠드는 《년례적》이니, 《방어적》이니 하는 훈련이 한갓 기만에 불과하며 《독수리》전쟁연습의 침략성과 위험성을 더욱 부각시키고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자는 공화국의 공명정대한 제안에 정면 도전하여 내외호전세력들이 날이 갈수록 전쟁광기를 더욱 부리고있는것은 누가 이 땅에서 평화를 바라고 누가 전쟁을 원하는가를 세계앞에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오기마련이라고 그칠새 없는 북침전쟁연습이 어느 순간에 실전으로 이어질지 알수 없다. 본사기자 김응철

내외호전세력들의 도발적인 북침전쟁연습소동으로 조선반도에는 그 어떤 우발적인 사고로 튀긴 한점의 불꽃이 전지역에 타번질수 있는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고 있다. 공화국은 평화를 귀중히 여기지만 결코 구걸하지는 않는다. 자기를 기어이 해치려는 적대세력에게 자위의 역센 힘으로 단호한 징벌을 안기라는것은 공화국군대의 멸적의 의지이고 기상이다. 최근에 공화국에서 진행된 항공 및 반항공군의 비행장타격 및 복구훈련 등은 공화국군대의 막강한 군력과 멸적의 기상을 온 세상에 다시한번 표시하였다. 막강한 핵억제력과 다종다양한 타격수단들을 가지고있는 공화국에 있어서 미국의 《핵몽둥이》는 허수아비가 지탱하고있는 막대기에 불과할따름이다.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내외호전세력들이 공화국군대와 인민의 멸적의 기상을 가려보지 못하고 세계제패 야망과 어리석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실현해보겠다고 이 땅에서 기어이 침략의 불을 지른다면 제가 지른 불에 타죽을것은 도발자들이고 북침전쟁광신자들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위험천만한 빼라살포소동중지를 주장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3월 26일 남조선의 청년들이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반공화국빼라살포소동의 중지를 주장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자기들이 미국에서 반공화국빼라살포소동을 부추기는 행위를 중지할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활동기간 빼라살포행위가 조선반도의 평화를 가로막고 군사분계선지역주민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는 위험천만한것이라는데 대해 날날이 폭로하였다고 말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공화국빼라살포행위는 영원히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자국의 리익을 위해 북을 자극하는 빼라살포행위를 지원하는 행위를 걷어치우고 고고도 요격미사일 《싸드》 배치 책동과 북침합동군사연습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만평 오도가도 못하고



서울에서 남조선 전지역의 공무원, 교원 8만여명 반 《정부》투쟁 전개

남조선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공무원, 교원단체 50여개로 구성된 공적년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3월 28일 서울에서 당국의 공무원년금개약책동을 규탄하는 대규모집회를 가졌다. 남조선 전지역에서 모여온 공무원, 교원 8만여명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박근혜 《정권》이 가혹이

나 적은 로임을 받는 공무원들의 년금을 더 줄이게 하는 공무원년금개혁을 끝끝내 강행하려고 발악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정부》가 공무원년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를 조작하고 여기에 공무원, 교원단체들이 참가할것을 강요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권력에 추종하는 이런 기구는 인정할수 없으며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박근혜 《정권》이 그들의

부정부패와 부자감세정책으로 부족되는 자금을 공적년금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충당하려 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박근혜때문에 노동자들의 삶이 끝장나는것을 보고만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떨쳐일어나 현 《정권》 심판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반 《정부》투쟁으로 한중도 안되는 보수집권세력과 재벌들을 청산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내자고 호소하였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국민생존권 지켜내자!》를 비롯한 구호판들을 들고 시위행진을 벌리면서 박근혜때당의 반인민적악정을 규탄단죄하였다. 시위자들은 《공적년금 강화하라!》, 《공무원년금개혁 중단하라!》, 《정권이 획책하는 재벌감세, 기업감세 철회하라!》고 웨치며 자기들의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본사기자



